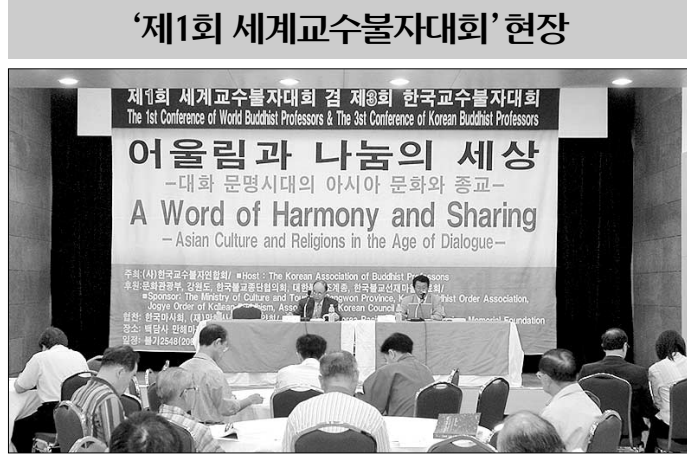


# “문명 충돌 종교간 대화가 해법”

‘대화문명 시대의 아시아 문화와 종교’를 주제로 한, 미, 영, 중, 일 등 9개국 200여 불자교수가 참가한 가운데 8월 17일부터 사흘간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제1회 세계불자교수대회’ 국제학술회의가 열렸다. 이번 학술회의는 오늘날 고조되고 있는 종교 및 문명 충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종교간 대화가 필요하며, 이에 불교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함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학술회의는 이준(건국대), 커렐 워너(영국 런던대), 츠요시 나카노(일본 소카대) 교수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돼 ‘종교 문명간의 대화’ 주제의 5편, ‘한국불교와 종교문화’ 주제의 6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또 분과별 주제발표 및 토론을 통해 정치·경제·과학·예술·사회·교



8월 17~19일 백담사에서 9개국 200여 불자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회 세계불자교수대회’ 국제학술회의 모습.

육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의 불교응용 가능성이 타진됐다.

이 가운데 불교적 가르침의 현실적 의의를 살피면, 불교 및 힌두철학 권위자 커렐 워너 교수(영국 런던대)의 ‘불교와 평화’, 기독교의 우상숭배금지 역사적 배경을 규명함으로써 기독교의 배타성을 극복하려 한 김은규 교수(성공회대)의 ‘불교와 기독교, 그 상생의 길’, 불교 사상의 실천 방법으로서의 정치세력화 가능성을 일본 예를 통해 검토한 츠요시 나카노 교수(일본 소카대)의 ‘불교 교단의 정치참여의 의의와 과제’ 등이 주목받았다. 불교사상을 국제정치학에 접목하려 한 이종국 교수(동경대)의 ‘동아시아 평화와 불교’도 응용 불교학 논문으로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됐다.

##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46>



### 신경계와 면역계

3년마다 열리는 세계면역학회가 지난 달 말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열렸다. 전 세계에서 1만 명도 넘는 학자가 모이는 학술대회로서 학문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 이번 대회에서의 주 관심사는 중추신경계인 뇌와 면역 기능간의 상호 작용이었다.

정신적인 자기인식의 바탕이 되는 뇌와 신체적인 나를 인식하는 면역기능은 오랫동안 별도의 체계로서 알려져 있지만 연구가 거듭됨에 따라 서로 영향을 주고 있음이 알려져 왔는데 특히 흥미로운 것은 신경계가 면역계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거꾸로 면역계도 신경계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다. 불가에서는 현재는 과거의 모습이고 미래는 현재를 보면 안다고 말하고

것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부처님께서도 운명론이나 속명론을 부정하셨다는 것은 부처님께서도 직선적 시간에 대하여 부정적이었음을 말해주며, 또 과거를 고정되어 있다는 직선적인 관점을 지니고 있는 현재의 삶에 대한 긍정과 수용을 결코 얻을 수가 없다.

한편, 생물학적으로 우리에게 과거란 신경계 속에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담겨져 있다. 이러한 신경계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면역기능이라면 면역작용이 말로 신경계 안에 담겨져 있는 과거를 변화시키는 데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현대 생명의학의 한 추세로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이

## 뇌와 면역기능 상호 영향 관계 밝혀져 생체는 고정되지 않고 항상 변화 추구

있다. 또 현재의 나는 과거의 업(業)에 의한 모습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이야기를 마치 속명론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이가 많은 것도 현실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직선적 시간의 개념에 익숙해져서 한번 일어난 과거는 이미 어쩔 수 없는 고정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과거는 우리의 기억 속에 자리잡고 있으며 현재의 우리를 이루는 바탕이 되어 있다. 하지만 과거에 대한 기억이란 원래와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기억되기도 하며 동시에 그 기억도 변화해감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또 경유에 따라서는 철저한 자각을 통해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즉 과거에 의해 정해진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기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란 결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변 면역학회에서 느낄 수가 있었는데, 특히 흥미로운 것은 면역현상이란 우리 몸 속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 작용하는 생체 기능이란 점이다.

나를 지키기 위한 기능이 끊임없이 자신의 과거를 변형시키고 또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듯 생체도 나를 고정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관계 속에서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 항상 새로운 모습으로 자신을 만들어 나간다는 점이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가 관념적으로 자신의 몸을 비롯하여 실체로서의 나라의 한 감각에 불합치하고, 그 한 생각으로 따져서는 철저한 자각을 통해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즉 과거에 의해 정해진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기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란 결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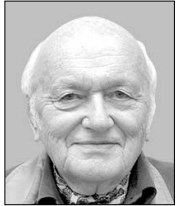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그림 : 문병성

### ‘평화’ 가르침 확산돼야

‘불교와 평화’-커렐 워너



“평화는 불교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주요 메시지 가운데 하나다. 이와 대조적으로 기독교나 이슬람교 같은 일신교는 종교적 목적의 전쟁을 허용한다. 그 결과 이슬람교도의 ‘성전’은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으며 기독교도들은 무자비한 정복전쟁을 일삼아왔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부처님의 평화 메시지는 과거에 그랬듯 현실적으로는 무력해가만 하다.”

17일 워너 교수는 ‘불교와 평화’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에서 평화가 불교의 주요 메시지만이 아니라, 그것은 주로 개인적 차원에서만 의미를 가질 뿐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주장했다. 워너 교수는 “부처님이 깨달은 지후에 자신의 깨달음을 다른 이에게 알리는 데 주저했던 까닭은 그들이 깨달음을 얻으리라고 기대하 “보살도 실천 통한 평화구현은 환상” “사바세계에서 평화의 실현이란 불가능하며, 오직 개인적인 차원에서 열반정도와 주위에 감화를 주는 정도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보살도 실천을 통해 모든 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회적인 평화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이라는 것이다.

제1회 세계불자교수대회에 참가 한 한국을 방문한 커렐 워너 영국 런던대 교수는 한국불교의 멋에 대해 “한국 불교는 심오하면서도 흥미를 느끼게 하는, 살아 있는 불교라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표현했다. 커렐 워너 교수는 1925년 체코 태생으로 영국의 더럼대, 런던대, 체코의 마사릭대학 등에서 인도·불교·힌두철학 등을 강의해온 세계적인 인도·불교철학 권위자. 그는 한국불교를 배우기 위해 1999년 처음 한국을 방문했으며, 그 뒤로는 매년 한국을 찾았고, 하나씩 둘러본 사찰이 이제는 120여 곳에 이른다. 커렐 워너 교수는 “한국불교는 중국으로부터 전래됐지만 한국적 사유를 적용해 독자적인 체계를 구축했다”며 “종파의 세분화 없이 통합적인 형태로 유지돼왔다는 것”을 강점으로 꼽았다.

### 대화 없는 ‘종교 쇠국주의’ 위험

‘불교와 기독교’-김은규



“종교 간의 대화를 거부하고, 자기 틀만 고집하는 것은 일종의 ‘종교 쇠국주의’입니다.” “불교와 기독교, 그 상생의 길”이라는 논문에서 기독교의 이원론적 한계를 극복하는 데 불교와 동양 사상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하며 종교 간 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한 김은규 교수.

성공회 신부이기도 한 김 교수는 논문에서 불교를 이해하는 열린 자세와 기독교의 문제점에 대해 진솔하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신선한 충격을 줬다. 김 교수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대해 배타적인 원인 중 하나로 ‘우상숭배 금지’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꼽으며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한 검토를 시도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종교는 가나안의 바알종교와 같은 다 종교의 예배 및 제례 의식의 영향을 받으며 발전했다. 그런데 바알종교가 퇴폐적인 양상을 띠게 됨으로써 바알종교의 상징은 저급한 것이 돼버렸고, 이스라엘 종교는 그 퇴폐적인 영향을 차단해야 했던 것. 그래서 바알종교의 우상을 금지한 것이었다.

이로부터 김 교수는 우상숭배 금지의 본질은 다 종교의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하기 위함이었지, 타종교를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데 있지 않다는 주장을 전개한다.

그는 “불교는 수행, 생명존중, 깨달음 등 많은 값진 사상을 포함하고 있다”며 “기독교는 이를 받아들이고 대화함으로써 서구의 이원론적 사상 등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표한 논문은 종교간 대화를 통해 종교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김 교수의 신념이 반영된 것이다. 김 교수는 이미 생태문제, 고통의 문제 등을 중심으로 불교와의 대화를 시도한 바 있다. 불교의 정도와 기독교의 하느님왕국(Kingdom of God)의 지향점은 “인권과 정의, 평화가 구현된 세상”이며 “불교와 기독교는 지구촌의 과제를 풀어야 할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

### 불교의 정치참여 ‘긍정’ 많아

‘일본에서의...’-츠요시 나카노



“불교에 기반한 관용과 보살도의 실천이 요즘처럼 간절한 때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정치·사회갈등 등은 일신교 전통의 국가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저명한 종교사회학자인 츠요시 나카노(일본 소카대) 교수는 특히 9.11 테러 이후 미국내 두드러지고 있는 ‘근본주의적 종교인종주의’를 우려했다. 이런 상황이 정치권력과 아합해 군사적 폭력을 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나카노 교수는 “불교의 정치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며 불교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고 실천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정치 참여를 제시했다. 이번에 발표한 그의 논문은 일본에서 불교가 종파에서 정당으로 발전해간 과정을 분석한 것으로 특히 창가학회(創價學會)가 공명당에 초점을 맞췄다. 그에 따르면 일본에서 불교의 정치 세력화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대외불교 전통에 근원을 두고 있는 창가학회(創價學會)와 입정교성회(立正佼成會)를 중심으로 전개됐다.

특히 창가학회는 1960년대에 공명당을 결성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이래, 90년대 이후로는 자민당 등 보수정당과 연합정부를 형성할 정도로 성장했다. 2004년 현재 공명당 의석수는 중의원 34명(전체 480명), 참의원 24명(전체 247명)으로 자민당과 민주당에 이어 제3당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는 “공명당이 중도적 자세로 정당 간의 갈등 완화, 평등주의와 자비사상에 입각한 보살도를 정책에 반영하려 노력했다”며 “그런 노력은 정쟁 자체, 정치의 공공성 회복에 대한 요구, 정치자금 규모 제한 및 모금과 집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법 활동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나카노 교수는 “하지만 자민당과 연합정권을 형성하면서, 생명·인권존중과 같은 공명당의 불교적 가치가 희석되는 등의 부작용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백담사 만해마을=박익순 기자

## 대한불교총화종

# 세계평화 기원 대법회 및 수록영산재

평화의 염원이 어느 때 보다 간절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생명을 해치는 행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총화종 전 종도와 불자님들의 정성을 다한 염원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공사 간 다망하시더라도 『세계평화 기원 대법회 및 수록영산재』에 무무 동참하시어 세계평화를 간절히 기원하고 모든 영가의 극락정토왕생과 누ების 업장 소멸을 발원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04년 9월19일(일요일) 오후 2시
- 장소: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중앙탑
- 문의: 총무원 -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342-1 ☎ 031)592-8891

※ 종단 소속 1300여 사찰에서 3만 여명 참석 예정

## 2004년도 정토불교 체육지도자과정 교육생 모집

# 선 카이로프락틱, 운동처방, 선 내공체술

- 1. 본 교육연수원의 설립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홍보하기 위한 출가수행자 및 법사들의 포교방편과 스님들의 자활력을 갖추어, 병고에 시달리는 중생구제와 더불어 보시금이나 불전에 의존하지 않고, 주며 베푸는 따뜻한 스님을 양성키 위해 **정형외과 의사와의 대화에서도 부끄럼이 없는 유능한 '카이로프락터'**로서의 정토교육을 힘쓰고 있다.
- 2. 교과목:** 카이로프락틱 교정 이론 및 실기(해부학, 스포츠맛사지, 근육학, 운동처방 포함) 디스크(목, 흉추, 요추, 선추), 오십견, 두통, 관절통, 편마비 등의 교정 방법들 미국 팔머대학의 교재로 확실히 교육시킴
- 3. 과 정:** 2급과정 교육기간 2개월(총 108시간) 지도자 자격증 발급 1급과정 2급과정 수료자로서 교육기간 1개월(총 54시간), 카이로프락틱 마니 플레이션
- 4. 모집방법:** 2급과정 30명(선착순 마감)  
● 지원자격: 출가수행 스님 및 법사, 불자  
● 입학금 및 강의료: 출가수행 스님으로서 승적증명서 제출자는 무료 (단, 식대 및 교재대 20만원)  
● 원서접수: 2004년 8월 7일 ~ 9월 1일 까지
- 5. 입학일시:** 2004년 9월 2일 13시
- 6. 원서교부처:** 정토불교 체육지도자 교육연수원 교학과 042)635-8186, 8187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241-14 호산빌딩



## 정토불교 체육지도자 교육연수원